

실내 공공체육시설 15일 개방한다더니...

어설픈 행정·대처에 이용자 '뒷전'

당일 시설 찾았던 생활체육인들 헛걸음 분통도 "방역 등 사전 준비부족... 개방 늦어질 것"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15일부터 전문 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당일 시설이 개방되지 않아 시설을 찾은 도민들이 헛걸음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는 현행 유지 지침을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된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해 "15일부터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

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3개월여만에 문을 여는 것이다.

하지만 개방 당일 정작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실내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기다리던 동호회원 등 생활체육인들이 헛걸음을 해야 했다.

이날 도내 한 체육시설을 찾은 도민 A씨는 "실내 공공체육시설 개방 일만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개방 소식이 알려지자 당일에 맞춰 버리나케 시설을 찾았지만 문을 연 곳이 없었다"며 "문을 열기로 한 날짜에 열지 못하겠으면 주말 사이 도민들에게 공지나 안내라도 해줘야 했던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도체육회에선 기존 일요일로 지정됐던 휴무일을 15일 당일 갑자기 월요일로 바꾸는 일도 벌어졌다. 제주도체육회는 이날 회의를 거쳐 스퀘시장은 오는 16일,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은 오는 17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이 장기화되는 데다 일반 도민들의 이용률이 평일보다 주말이 높아 이번에 휴무일을 월요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농장행정으로 실내 공공체육시설 개방만을 기다리던 도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민 B씨는 "행정기관 간 공문 발송, 처리 등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 때문에 정작 개방이 늦어진 것 아니냐"며 "이렇게 가면 (지난)12일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 시에 15일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발표를 차라리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휴무일 변경도 의견수렴 없이 이뤄지면서 체육시설이 이용자보단 관리자 입장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제주시체육회 관계자는 "15일부터 오픈 예정이어서 제주시로부터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 행정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야 예약 시스템을 오픈해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 소속 체육시설에 전화로 미리 통보는 했고, 공문은 지난 14일(일요일)에 보냈다"며 "방역 소독 등 개방 준비 차원에서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

또 여객기 보조날개 손상된 채 운항 제주항공 김포→김해 일정 마친뒤 기체 손상 확인

항공사들이 기체 손상을 모르고 여객기를 운항하는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64편이 낮 12시10분쯤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이 손상됐다. 그러나 해당 여객기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고, 일정을 마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와 에어서울 여객기 간에 접촉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 여객기는 왼쪽 날개 끝이 굽히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졌다.

하지만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여객기를 운항한 바 있다.

국토부다 이들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고령 해녀 찾아가는 응급교육 시행

제주동부소방서 3-6월 사이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제주 동부소방서는 해녀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3-6월 시기에 맞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54건의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6건은 심정지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정지 환자 중 70.4%가 70세 이상의 해녀 고령

자이며, 체력약화와 무리한 입어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동부지역 70대 이상 해녀는 1153명으로 동부지역 해녀 전체 인원(2084명)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동부소방서는 해녀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 보호를 위해 구급대원과 의용소방대 전문강사와 함께 도내 어촌계와 잠수어업인(해녀)를 직접 찾아가 올해 말까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오늘부터 전국에 황사 내일부터는 약해질 듯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바이칼호 부근의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크게 벌어져 생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16일 새벽에 비가 그친 뒤부터 황사가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돼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영향 안에 들겠다.

17일부터는 황사가 점차 약화되겠지만 이후에도 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강민성기자



유채꽃 활짝 피어난 함덕 서우봉 15일 제주시 함덕서우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노란 유채꽃과 아름다운 함덕해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소규모 감염 지속... 4명 신규 확진

607·608번 격리 해제 전 확진... 도 "전파 가능성 없어"

제주지역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3월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확진자가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는 610명으로 집계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3명(제주 607-609번), 15일 1명(610번) 등 이를 세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제주에선 3월 들어 40명, 올해 총 18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7·608번 확진자는 이날 1일 확진된 571번의 가족으로, 모두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행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571번은 전라북도 확진자의 지인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두 명의 확진자 모두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별도의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09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가 진행 중이다. 609번은 지난 10일부터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며 따라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찾아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 최종 확진됐다.

610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610번 역시 지난 10일부터 기침, 두통, 오한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15일 오후 2시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드림타워에 아울렛... "지역상권 다 죽는다"

어제 유통업상생협 사전회의 지역상권 상생방안 마련 촉구

최근 개장한 드림타워와 입점 예정인 나인몰, 신화월드 아울렛 등 제주에 잇따라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상권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15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9월 1일 출범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제한 조례'에 따라 구성돼 2년간 운영되는 기구다. 협의회 구성원은 행정2명,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대표 2명, 학계전문가 1명, 소비자단체 1명, 이해관계자 1명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 판매

확대와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발전 사항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의논했다.

신애복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규모 점포가 등록을 하기 위해 들어온다면 막을 순 없겠지만 법으로만 의논하지 말고 지역 소상공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특성상 1시간도 안되는 거리라 대규모 점포들이나 아울렛이 들어오면 제주도 전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화월드와 드림타워에 아울렛 입점은 지역상권을 다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에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지역상권과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불자답게 정진하는 불자인"

사단법인 불다클럽 2021년 제54차 정기총회 및 총회장 이·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사)불다클럽 회원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불다클럽 2021년 제54차 정기총회 및 총회장 이·취임식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과 협조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약식으로 진행하였음을 신문광고로 대신하여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역대총회장

- 홍재만 김정부
- 양철익 김영식
- 허익선 채승철
- 김봉근 이영근
- 김성배 송원식
- 양방규 강경호
- 정승익 오홍식
- 김영식 김태문

제 29대 조건형 총회장(이임) 제 30대 양창수 총회장(취임)

총 회장 양 창 수

직전총회장 조 건 형

내부부회장 고 도 현

사무총장 양 정 남

외무부회장 윤 경 용

감 사 양 정 두 문 성 흡

부 회장 강주행 강경훈 한보유 양행진 김기춘 양태수

사단법인 불다클럽
취임회장 양 창 수

총무국
국장 안성진
부장 고평식

재무국
국장 오승용
부장 양윤철

조직국
국장 박용찬
부장 조영구

연수국
국장 박창명
부장 한경호

홍보국
국장 현학삼
부장 양수호

봉사국
국장 김신덕
부장 공희철

문화체육국
국장 강창우
부장 김태철

대외의전국
국장 김계범
부장 고재수

백록회
회장 오희부
부회장 문성흡
사무국장 오대승

영주회
회장 이종근
부회장 장승남
사무국장 고병욱

한라회
회장 강승훈
부회장
사무국장 김기환

천지회
회장 강경진
부회장 강계영
사무국장 이명직

탐라회
회장 고수봉
부회장 김공식
사무국장 이영훈

반야회
회장 고경우
부회장 임호진
사무국장 고태호

정방회
회장 양남호
부회장 오창악
사무국장 김민기

금강회
회장 김상보
부회장 최병수
사무국장 이대복

● 신입회원 가입안내 ● 자격 제주내 거주하는 기혼남성 불자 만 55세 미만 ● 가입방법 회원추천 및 직접가입 가능 ● 가입문의 제주시 동광로 80 현원아트빌 304(3층) ● 전화 064)751-1080 ● 팩스 064)757-8287